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②	③	③	①	④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③	②	②	④	④	①	③

총평

안효선 교수

지안 공무원 학원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영역별로 문법 8 문항, 어문규정 2문항, 문학 3문항, 비문학 4문항, 한자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암기-지식형 문제보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 풀 수 있는 사고력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문법의 문제가 많이 출제 되므로 문법의 각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자성어의 경우 기출문제에서 보기 어려웠던 한자성어가 출제된 만큼, 앞으로 한자성어를 학습할 때 단순히 음만 외울 것이 아니라 개별 한자도 암기하여 학습해야 모르는 한자 성어가 나와도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

1. [문법]-[언어와 국어]-[국어의 특성]

국어는 음절 구조 제약에 따라, 음절 말에서 한 개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값’의 발음은 [갑]이 된다.

<오답 해설>

① 국어는 계통상 알타이어에 속하며, 알타이어의 대표적 특징인 교착어의 특징을 가진다. 교착어는 첨가어로도 부르며 문법적 기능을 가진 요소(조사, 어미)가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문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국어는 담화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상황·맥락상 유추할 수 있는 주어, 목적이 등은 흔히 생략된다.

④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국어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하여 ‘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재종사촌, 누나, 여동생...’ 등의 친족어가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예: aunt → 고모, 이모, 외숙모, 아주머니(부모와 친구 사이인 여성을 부를 때)

2. [로마자 표기]

로마자 표기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전사한다. ‘종로’의 발음은 [종노]이므로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Jongno’가 된다. 이때 고유명사이므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② ‘알약’은 ‘ㄴ’ 음운 첨가가 일어난 뒤, 앞의 자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알랴]로 발음된다. 로마자 표기법에서 ‘ㄹ’이 연결되어 발음되는 ‘ㄹㄹ’의 경우 ‘ll’로 표기하므로 [allyak]로 적는다.

③ ‘같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되므로 [gachi]로 적는다.

④ ‘좋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조코]로 발음되므로 [joko]로 적는다.

3. [한글 맞춤법]

‘맞히다’는 ‘맞다’에 사동사 ‘-히-’가 결합된 것으로, 문제를 푸는 상황에 쓸 경우, 답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②번의 경우 자신이 적은 답과 정답을 비교해 보라는 뜻이므로, 이 경우는 ‘맞추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으로써’는 수단·도구나 이유 등을 나타낼 때 쓰는 격조사로, 철수가 열심히 일을 하여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는 데 적절하게 쓰였다.

③ ‘넙죽’은 부사로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너부죽하게 닳음 벌렸다가 닫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 적절하게 쓰였다.

④ ‘-는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아이가 밥을 먹었는지’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뒤의 ‘모르겠어’라는 판단과 연결되도록 ‘-는지’가 연결하고 있으므로 맞춤법이 적절한 문장이다.

4. [문법]-[중세국어]

‘뭇글어늘’에서 ‘ㄹ’ 받침을 가진 ‘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늘’이 연결되었지만 이어 적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기를 ‘표의적 표기법, 분철, 끊어 적기’라고 부른다. 또 ‘장기판늘’에서 ‘ㄴ’을 두 번 적은 것은 흔 표기이며 이어적기를 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값’과 ‘은’의 연결을 ‘기픈’으로 이어 적었다.

② ‘부름’과 ‘애’의 연결을 ‘부르매’로 이어 적었다.

④ ‘바를’과 ‘애’의 연결을 ‘바르래’로 이어 적었다.

5. [비문학]

㉠에서 화가의 사람의 좌안과 우안을 그리는 순서에 관여하는 요소는 (1) 화가의 주관과 (2) 손의 편의이다. (1) 화가의 주관에 따라 주요 이목구비를 먼저 그리며, (2) 손의 편의성을 위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그리게 되면 물감이 손에 묻을 확률도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즉 대부분의 화가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편하고 또 손에 물감이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를 뒷받침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의 표정과 관련된 설명이 ㉡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② 좌뇌와 우뇌와 관련된 설명이 ㉡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④ 시대의 경향성과 관련된 설명이 ㉡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6. [문학]-[고전 문학]

‘동지시들 ~’은 황진이이 시조로,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시조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시조에서 동짓달 밤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으나, 사랑하는 임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초장 ‘동지(冬至)시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에서, 자를 수 없는 추상적 대상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

처럼 자른다고 형상화하였다.

③ '서리서리', '구뵤구뵤'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④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7. [한자어]

받침이 없는 단어의 경우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어에는 '여차피(於此彼)', 도대체(都大體) 등이 있으며, 선지 ①의 경우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지 묻는 문제에 기출되었던 적이 있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① 모골(毛骨): 털과 뼈를 아울러 이르는 말

송연하다(悚然--/悚然--): 두려워 몸을 움송그릴 정도로 오싹 소름이 끼치는 듯하다.

② 도대체(都大體): 「1」((주로 의문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점만 말하자면. 「2」((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유감스럽게도 전혀. 「3」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하여 묻는 것인데.

③ 매사(每事): 하나하나의 모든 일.

8. [문법]-[의미론]

중의성은 한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기>에서는 형용사 '아름다운'의 수식 범위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한다. 우선 '아름다운'이 '서울'을 수식할 경우, '서울은 아름답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며, 또 '아름다운'이 '서울의 공원'을 수식할 경우 '서울의 공원은 아름답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이 '서울의 공원과 거리의 나무'를 수식할 경우 '거리의 나무는 아름답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어구에 있는 '아름다운'은 '봄꽃들'을 서술하지 않는다.

9. [비문학]-[오류의 유형]

<보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상황을 통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상대의 의도를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의도 확대의 오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②번도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을 통해, '나를 싫어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의도 확대의 오류'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이등병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③ '김씨는 참말만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시하였으므로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를 논거로 제시하는 오류인 '순환 논증의 오류'에 해당한다.

④ '거짓말은 죄악'이라는 일반적인 신념을,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도 적용한 오류로, 일반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특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원칙 혼동의 오류'에 해당한다.

<지안 국어> p.31, 적중

② 원칙 혼동의 오류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특수한 경우에도 그러한 것을 잘못 생각하는 오류, 즉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할 원칙이 다른데도 이를 혼동하여 생기는 오류

■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악이다.

10. [문학]-[희곡]

이 작품은 이근삼의 「원고지」라는 작품으로, 어느 중년 교수의 반복되는 일상과 기형화된 생활을 통하여,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과 인간 소외를 풍자한다.

<오답 해설>

①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 준다'는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이 작품은 소품 등을 이용하여 현실을 과장되게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문학 작품이 아니다.

② 이 작품과 반공주의는 관련이 없다.

③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는 1960년대로 근대극이 뿌리 내린 이후에 창작되었다.

<지안 국어>, p263 적중

어해와 감상

《원고지》는 대표적인 부조리 연극의 작가 이근삼의 동단 작품으로, 다양한 극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기형화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의 모습을 소재로 하여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과 인간 소외를 그린 단막극이다.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의 전개나 갈등 없이 비현실적인 극중 상황을 과장되게 전개한 상황극으로, 외형적으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나 이미 가족적 유대감이 해체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가족으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서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현대인의 비극적 상황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무대 장치와 분장, 소도구는 물론이고 인물의 대사와 동작에도 반어와 풍자 등 희극적 과장법을 사용하여 리얼리즘 위주의 한국 연극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11. [문법]-[통사론]

주어부의 '내가 ~빈 것은'이 서술어의 '~때였다'와 잘 어울리므로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왜냐하면'은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쓰는 부사이므로 서술어는 '~기 때문이다'가 적절하다.

② 주어부의 '까닭'은 '~기 때문이다.'와 어울린다. 따라서 '우리가 합격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관심'을 '해 나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12. [비문학]

마지막 문장은 청렴하지 못한 관리들의 가렴주구로 인해 도적이 성행하였고 백성들이 수탈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뒤에는 관가 또는 토호 등의 물건을 훔치는 임꺽정이,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는 의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④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오답 해설>

① 『명종실록』, 『기제잡기』, 『성호사설』, 『열조통기』, 『청장관전서』의 문헌에서 임꺽정이 도적이라고 서술되어 있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더 철저한 문헌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지문의 맥락으로 비추어 홍명희가 '임꺽정'이라는 인물 자체를 미화하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다.

③ 임꺽정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므로 <보기>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3. [문법]-[형태론]

형용사 '기쁘다'에 파생접미사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기뻐하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①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② '시누이'는 '남편의'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시-'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③ 접두사 ‘빛-’이 결합된 ‘빛나가다’와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공부하다’는 파생어에 해당한다.

④ ‘한창인’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한-’이 결합되었으므로 단일명사가 아니라 파생명사이다.

14. [한자성어]

<보기>는 임의 여인 슬픈 마음을 까투리와 도사공의 위급한 상황에 비유하여 나타낸 사설시조이다. 밑줄 친 부분은 큰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움직일 수단을 잃어버린 도사공이 해적을 만난 상황이며 이에 적절한 한자 성어는 ③ ‘전호후랑(前虎後狼)’이다. ‘전호후랑’은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재앙이 끊임없이 닥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설상가상

<현대어 풀이>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천 척을 실은 배에 노도 없고 닻도 없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붙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잿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고 어둑하게 저물었는데 천지는 적막하고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엇그제 임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하리오?

<오답해설>

권토중래(捲土重來):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①한 번의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②패한 자가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옴 ③한번 실패하고 나서 다시 그 일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인연하여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①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함 ②허술한 계책으로 큰일을 도모함을 이르는 말이다.

천의무봉(天衣無縫):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①성격이나 언동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 ②시나 문장이 기교를 부린 흔적이 없어 극히 자연스러움을 이르는 말이다.

15. [비문학]

㉠ 없이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이론’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또한 ‘이론적 저작’이 ‘경험적 세계의 퍼즐’을 푸는 행위가 없다면 ㉢으로부터 빛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현실’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16. [문법]-[형태론]

동사의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이지만, 혼자 쓰일 수 없고 어미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립 형태소’가 아닌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 해설>

① 조사는 단어이지만 명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에 붙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존 형태소’이다.

③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며 여기에는 명사, 동사 어간이 포함된다.

④ 어미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 형태소’이다.

<형태소의 분류>

	자립	의존
실질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형식		용언의 어미, 조사, 접사

17. [한자어]

ㄱ. 결재 → 결제 決 결단할 결, 濟 건널 제

ㄴ. 화상 → 화장 火 불 화, 葬 장사지낼 장

ㄷ. 묘사 → 모사 模 본뜬 모, 寫 베낄 사

ㄹ. 재량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ㅁ. 모두 冒 무릅쓸 모, 頭 머리 두

ㅂ. 위탁 委 맡길 위, 託 부탁할 탁

18. [문법]-[품사]

‘겸’은 의존명사로 “「1」(둘 이상의 명사 사이에 쓰여)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2」(어미 ‘-을’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④선지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 해설>

① 이 문장에서 ‘비교적’은 ‘편하다’를 꾸며주는 부사로,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로보다 꽤’라는 의미를 가진다.

② ‘아니’는 부사로 이 문장에서는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로 쓰였다.

③ 이 문장에서 ‘보다’는 부사로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라는 의미로 쓰였다.

19. [문학]-[고전 문학]

<보기>의 작품은 <심청전>으로, 심청이 임당수에 빠지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서술자가 ‘심청 같은 ~가련한 몸을 잠겼도다’, ‘부처는 심청을 도울지 못하였거니와~ 모르리오.’와 같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해당 부분에서 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작품의 주인공은 심청이며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20. [문법]-[통사론]

③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지가 않다’는 내용이며, ‘건강하지가 않다’의 주어에 해당하므로 목적어가 아니다. 목적격 조사 ‘을/를’이 쓰여도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목적어가 아닐 수 있다.

<오답해설>

① 밑줄 친 부분은 ‘결정하지 못했다’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결정하다’는 ‘~을 결정하다’와 같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② 밑줄 친 부분은 ‘기다렸다’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기다리다’는 ‘~을 기다리다’와 같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④ 밑줄 친 부분은 ‘가리지 않는다’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가리다’는 ‘~을 가리다’와 같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로, 해당 문맥에서는 “잘잘못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 따위를 따져서 분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